

# 함평영재교육원, 창의융합페스티벌 성료

청사초롱·유건·도포 등 활용 레드카펫 장식

스피드팬토미노·3D·미니 드론 등 부스 운영

함평교육지원청이 지난 3일, 함평군 함빛관에서 함평영재교육원생과 지역주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통 수료식 및 창의융합페스티벌을 가졌다.

이 행사는 전통 수료식 절차와 코딩 순서도와의 상관성에 착안해 함평영재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힘써 온 스승, 학부모, 지역민에게 자신들이 성과물을 재능기부하는 형식으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청사초롱을 선두로 유건, 도포를 착용한 영재교육원생 80명이 레드카펫 위로 입장했고 1부 수료식은 조선시대 서당에서 책 한 권을 떨 때마다 행했던 세책례와 부모님께 차를 올리며 만수무강을 기원하던 효도 진다례를 접목해 진행됐다.

2부 지역민과 함께하는 창의융합 페스티벌은 '미래의 함평 스마트 도시 체험하기'에서부터 과학과 수학의 원리를 활용한 스피드 팬토미노, 3D펜을 활용한 생활용

품 만들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펼쳐졌다. 주민과 함께 코딩해 로봇을 움직여 보는 스피드로봇, 학생들이 개발한 보드게임을 주민과 함께 실현해 보는 팀블링다이스, 미니 드론을 활용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등 10개의 주제 부스가 운영됐다.

박영숙 교육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전통 수료식이 낯설 수 있겠지만 미래는 과거와 현재가 씨줄과 날줄로 짜여져 만들어 낸 작품(텍스트)이다."며, "오늘의 전통 수료식을 통해 스승과 부모에게 존경과 사랑을 표하고 재능기부를 통해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어, "공자가 말했듯이 '앎(知)은 사람을 아는 것, 곧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참 앎은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에 함평영재들은 자신의 주변 사람을 사랑하고 자기 재능을 함께 나누는 참영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목포고 부설 방송통신고 제39회 졸업식

49명의 만학도 '늦었지만 값진' 졸업장 받아

장석웅 교육감 "여러분이 걷는 길이 바른길" 축하

목포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 등학교가 5일 목포고 창룡관 3층 시청각실에서 제 39회 졸업식을 가졌다.

이날 49명의 만학도들은 늦었지만 누구보다 값진 졸업장을 받았다.

힘들었던 가정 형편으로 자신의 형제들을 위해 배움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 가정 형편으로 학교를 다닐 수 없었으며, 아픈 몸을 치료하기 위해 학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들이다.

이날 졸업식에는 장석웅 전라남도교육감과 교육기관 관계자, 졸업생 가족 등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 만학도들의 졸업을 축하해줬다.

특히, 졸업생 심현화(61) 씨는 49명 졸업생을 대표해 손수 작성한 손편지를 어렵게 공부하는 후배들에게 들려줘 감동의 시간을 연출했다. 심 씨는 손편지에서 "어려운 가정환경 때문에 오빠를 위해 1남 6녀 중 둘째인 자신이 학업

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며, "늦게나마 학업을 마칠 수 있게 도와준 남편과 아이들, 선생님들에게 고맙다."고 밝혔다. 또한, "처음에는 공부가 어렵겠지만, 즐거운 마음과 함께 본인의 의지와 노력만 있다면 배움의 보람을 느낄 수 있다."고 후배들을 격려했다. 심 씨는 자신이 직접 만든 파우치를 선생님들에게 선물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이날 졸업식에 함께한 장석웅 전라남도교육감은 "시작은 아무리 늦어도 빠르며 여러분이 선택한 이 길이 더디 가더라도 달리 가더라도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걸어온다면 그것이 곧 바른 길이다. 그 길이 끝내 기적을 이룰 것."이라고 축하했다.

김갑수 교장은 "이 졸업장은 단순한 졸업장이 아닌 여러분이 살아왔던 모습을 담고 있는 소중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목포=박정수 기자



## 전남학생교육원, 평화통일희망학교 연수

전남도학생교육원은 "2020. 전남평화통일희망학교" 교직원을 위한 역량강화 연수를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5일동안 학생교육원에서 운영한다.

6일부터 실시한 연수의 주요 내용은 독립운동, 평화통일, 남북교류 등 평화통일희망학교 교육과정과 실제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필요한 역량강화 연수로서, 2020년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동안 활동할 평화통일희망학교 교직원 20명과 운영요원 5명의 전문성 신장에 중점을 두고 실시중이다.

학생교육원은 지난 12월 20일

이 연수에 참가할 평화통일희망학교 교직원 선발 결과를 발표한데 이어 12월 24일 사전 안내교육을 실시하였다. 평화통일학교 교직원은 교장1명 교감1명 교사 18명, 총 20명을 선발하는데 49명이 지원하여 평균 2.5: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연수에 참가한 2020. 평화통일희망학교 이계준 교장은 "평화통일교육방향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토론하고 소통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인호 기자

## 교육자치, 현장에 묻고 정책으로 답하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자치, 현장에 묻고 정책으로 답하다'는 슬로건 하에 '교육자치 포럼'(이하 '포럼')을 진행한다.

이 포럼은 교육자치와 교육분권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교육자치의 인식과 역량을 높이고자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육부가 공동으로 기획 운영한다. 나아가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교육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학교자치 실천 방안까지 모색하는 방식으로 포럼을 개최된다.

교원과 교육전문직, 일반직공무원, 교육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포럼은 1월 9일 1차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원에서 시작해, 2차 포럼은 29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진행한다. 2월 13일과 14일 제주에서 진행되는 3차 포럼은 정책제안 마당으로 구성했다.

1~2차 포럼에서는 교육자치와 학교자치의 방향과 과제를 토론·토의하고 실천사례를 공유하면서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

3차 포럼은 교육자치와 학교자치를 위한 정책제안을 공모하여 실제 정책 과제안까지 마련해 보는 참여형으로 진행되는 특징이다.

1,000여명이 신청하여 조기 마감되는 등 교육자치 포럼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가 높아 성황리에 개최될 것으로 기대한다.

2차와 3차 포럼에는 교육감들도 참석하여 교육자치에 대한 토크를 진행한다.

조인호 기자

## 무안공공도서관 희망 강좌 수료조사

만족도·효율성 증진 목표

무안교육청소속 무안공공도서관은 2020년 평생학습강좌 사전 수료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조사는 무안지역 학부모와 학생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희망 프로그램 개설을 위한 것으로 지난 4일부터 12일까지 8일간 진행한다. 어린이 프로그

램은 2월 봄방학을 포함해 연중 운영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운영할 예정이다.

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수료조사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우선 개설하여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만족도와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라고 하였다.

무안=이기성 기자

